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현 승 환*

목 차

1. 서 언
2. 갈등구조
3. 인물의 성격
4. 전승의식
5. 맺 음 말

1. 서 언

제주도에서 전승되던 본풀이에는 一般本풀이, 堂本풀이, 祖上本풀이¹⁾가 있다. 일반본풀이란 일반적인 自然事象이나 人文事象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요, 당본풀이란 부락수호신인 당신들의 내력담이며, 조상본풀이란 한 집안 또는 한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느 것이나 본풀이는 굿을 할 때 심방들에 의하여 노래 불려진다.²⁾

삼공본풀이는 일반본풀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상신의 내력담이다. 전상이란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³⁾을 말한다. 삼공맛이 들어가는 말미에 의하면 글하는 것, 활쏘는 것, 관공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모든 것이 전상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좋은 전상도 있고, 나쁜 전상도 있다. 곧 삼공신은 인간 삶에 있어서 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삼공본풀이는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1)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pp. 312-313.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건》, 신구문화사, 1980, p. 875.

3) 현용준, 위의 책, p. 63.

바로 이 전상신의 내력담이면서 의례이다.

삼공본풀이는 큰굿의 제차 중의 하나이다. 큰굿에서 불러지는 본풀이에는 12개⁴⁾가 있는데 이 일반신 이야기는 제주 전도에 분포하면서 어디서나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즉 전상신의 내력담인 삼공본풀이는 제주 전역에 분포하는 신화인 셈이다. 따라서 삼공본풀이를 즐기는 제주민의 신화에 대한 수용 의식은 이와 같은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신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전승자들의 욕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집단이 산출해 낸 문학작품이기에 이를 향유하는 전승 집단의 의식을 추출해 봄으로써 신화의 전승 가치를 밝혀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전승하는 전승집단의 문학 의식을 파악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제주도에서 무당에 의해 불러지는 신화이며 민간에서는 민담으로 남아있다.⁵⁾ 본토에서는 이와 같은 신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지만 민간에서는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신화, 전설, 민담을 포괄하는 광의의 설화가 전승민들의 문학이므로 신화, 민담을 구분하지 않고 설화로서 삼공본풀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신화인 삼공본풀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민담인 「내 복에 산다」계 설화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전승 의식을 밝혀 보려 한다.

2. 갈등구조

제주에서 신화로 불러지는 삼공본풀이 중에서 가장 먼저 채록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옷상실에 살던 한림수파와 일상실에 살던 구애궁전녀설부인이 흉년에 걸
 식을 하다가 서로 만나 부부 인연을 맺고서 딸 셋(은장아기, 늦장아기, 감

4)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사만이본풀이를 말함.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2에 의하면 ‘금덩이 파낸 솟장수’라는 제목으로 양형희(남, 56)씨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은장아기)를 낳고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 하고 물으니 큰 딸, 둘째 딸은 '부모의 덕으로 산다' 하는데 막내 딸은 '첫째 덕은 하느님 덕이요, 둘째 덕은 땅의 덕이요, 셋째 덕은 부모 덕이요, 네째 덕은 내 뱃동아래 신그릇 덕이라' 하였다. 부모는 막내딸 감은장 아기의 불효스런 답변을 듣고 요망스러운 년이라 하고 검은 암소에 의복행장 실어 놓고 계집 하녀를 붙여 집에서 쫓아내었다. 그리고선 부모가 큰 딸과 작은 딸에게 감은장아기의 거동을 보고 오라고 내어 보냈더니 두 언니는 밖에 나와 막내 동생을 보고 빨리 나가라는 말을 하자 두 언니의 악심을 미워하여 도술을 사용하여 큰 언니를 지네로, 작은 언니를 말뚝버섯으로 변신시키고 가루 한 줌을 뿌려 부모를 실명케 하고는 오방신장을 불러 집안을 일시 폐망시켰다.

그 뒤 집을 나온 감은장 아기는 마 파는 삼형제를 차례로 만나 그들의 마음가짐을 시험해보고 막내 아들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하루는 남편의 마파던 곳을 가보니 구덩이마다 황금이 가득하며 남편을 시켜 이를 팔게 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어 실명한 부모가 다시 그리워 석달 동안 걸인 잔치를 했더니 부모가 찾아왔는데 저녁대접을 하고 감은장아기는 전후 사실을 죄다 말하고 자기가 막내 딸 감은장 아기라 하니 실명한 부모가 깜짝 놀라 득명하게 되었다.

이때 감은장아기가 부모에게 두 형의 처지를 이야기 하고선 '저는 전생의 인연으로 인간에 나왔사오니 부모가 부자로 살게 된 것은 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했다. 부모가 전생 인연이란 무엇인가고 물으니 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생 인연이라 답변했다.⁶⁾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누구의 덕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셋째 딸은 재 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한다. <부녀 복 확인 문답>
2. 부친의 뜻을 거역한 셋째딸<감은장 아기>가 집에서 쫓겨난다. <축출>
3. 부모가 맹인이 된다. <맹인>
4. 부모가 거지가 된다. <거지>
5. 산중의 오막살이에서 마룡이(민담은 숫장이 총각)를 만난다. <해후>

6) 秋葉隆·赤松智城,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大阪屋號書店, 1937, pp. 429-436.

이 외로 김영돈·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제주도 무당굿놀이》, 1965,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 현용준, 《제주도 신화》, 197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6. 마통이의 마구덩이에서 砂金을 발견한다. <금 발견>
- 7. 두 사람은 결혼하고 부자가 된다. <부자>
- 8. <감은장아기>는 맹인(결인)잔치를 연다. <잔치>
- 9. 셋째딸을 발견하고 개안한다. <개안>
- 10. 부친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 <행복>

이러한 내용의 설화는 본토에서 「내 복에 산다」라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민간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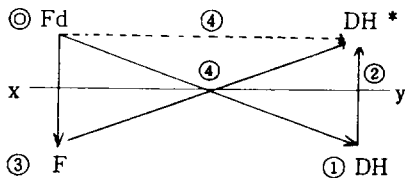
부친이 딸 3형제를 불러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다. 첫째와 둘째 딸은 아버지 복으로 산다고 하는데 셋째 딸은 자신의 복에 산다고 대답하여 미움을 사 쫓겨난다. 숲장이를 만나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은 점심을 하여 남편의 일터로 간다. 숲 굽는 터의 이맛들이 금덩이임을 발견한 아내는 남편에게 그걸 팔아오도록 한다. 남편은 숲을 못굽게 한다고 거절하나 억지로 팔아 오도록 하였는데 이것들이 금으로 판명되어 부자가 된다. 한편 친정은 가난해져 부친은 거지가 되어 돌아다닌다. 딸은 부친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집 문을 열 때 자신의 이름이 소리나도록 하게 한다. 부친은 구걸하러 갔다가 큰 부자집에서 딸을 만나 호의호식한다.

위의 삼공본풀이와 민간설화에서 공통하는 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녀 복 확인 문답
- 2. 축출
- 3. 결혼
- 4. 금 발견 · 부자
- 5. 부녀 상봉

이러한 내용을 이루는 삼공본풀이의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삼공본풀이의 구조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위 표에 대한 설명을 하면 F(Father)는 아버지(단지 f는 존재의의가 희박한 아버지를 나타냄)를, d(daughter)는 결혼하기 전의 딸을, D(Daughter)는 결혼한 딸을, H(husband)는 가난한 마퉁이를 표시한다. xy축의 위 부분은 +로 이것은 행복·부유 등의 영역을 나타내고, - 부분은 불행·빈곤, 죽음 등의 영역을 나타낸다.

→는 이야기의 전개 방향, ①, ②...는 전개의 순서를 표시한다. 단지 실선이 아닌 점선의 ----→는 F가 예외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말인 경우를 표시한다. ◎ 표시는 이야기의 발단, * 표시는 그 중착점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은 삼공본풀이에서 딸인 d가 각각 교차점을 통과하고 일단 -영역으로 옮겨지는데 그 경우 아버지인 F와 남편인 H의 위치가 역전된다. 즉 0점을 중심으로 +와 -의 관계가 시이소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림의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하기로 한다.

Fd인 ◎에서 발단된다. 아버지와 딸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덕이 누구 때문인가를 확인하고자 복 확인 문답을 한다. 부유하게 살고 있으므로 행복의 상황이다. 부친은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고 막내딸은 자기 복에 산다고 대답한다. 화가 난 부친은 딸을 내쫓게 되고 거처할 곳 없는 딸은 숲장이를 만나 부부가 된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부친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 불행이다. 이것이 +Fd →-DH인 ①의 관계다.

마퉁이와 부부가 된 딸은 가난했지만 남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함으로써 부자가 된다. 불행의 상황의 역전되어 행복이 된다. 이것은 그림에서 ② 곧 -DH → +DH의 관계를 표시한다.

아버지는 내 복에 산다고 하는 딸이 미워 쫓아낸 후 영락하여 거지가 된다. 이것은 불행이다. 그림에서의 ③의 과정으로 +Fd →-F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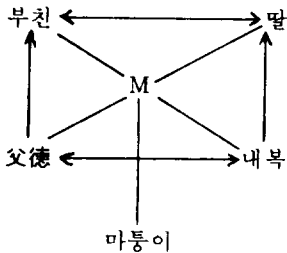
거지가 된 아버지는 구걸하며 여기 저기를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자신이 쫓아낸 딸을 만난다. 몰락한 아버지가 부자인 딸을 만나 거지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의 소식을 궁금해 하던 딸이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이는 행복이다. 그림에서 ④의 과정으로 -F →+DH를 나타낸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부녀 복 확인 문답----- 행복----- +Fd
- ① 딸 축출·마통이와 결혼----- 불행----- -DH
- ② 금 발견, 부자----- 행복----- +DH
- ③ 부친 영락----- 불행----- -F
- ④ 부녀 상봉----- 행복----- +DH

위의 이야기는 발단부<◎ 부녀 복 확인 문답>, 전개부<① 딸 축출·마통이와 결혼, ② 금 발견·부자>, 결말부<③ 부친 영락, ④ 부녀 상봉>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2항 대립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야기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단부

위에서 제시된 '누구 복에 사는가'라는 문제로 인해 축출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발단부의 갈등 구조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대립관계 : 부친과 딸, 부덕과 내복
 모순관계 : 부친과 내복, 딸과 부덕
 내포관계 : 부친과 부덕, 딸과 내복
 M : 중재자 혹은 의미 수렴자

부친은 딸들을 불러다 놓고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다. 첫째와 둘째 딸은 아버님 어머님 덕에 산다고 대답하니 부친은 몹시 흐뭇해 한다. 이어서 셋째 딸에게 질문을 하니 그녀는 자신의 복에 산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부친에게서 미움을 사 쫓겨나게 된다. 아버지가 희망하는 대답은 「부덕」인데 딸은 「내복」이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부덕, 딸과 내복의 관계는 서로가 바라는 관계 곧 내포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부친과 셋째 딸은 대립적 위치에 있다. 서로가 자신의 처지를 양보하지 않는 대립 관계이다. 부친은 딸이 내복에 산다는 말을 수용할 수 없다. 딸 역시 부친이 요구하는 부덕에 산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모순 관계이다.

딸이 내 복에 산다고 대답하자 부친은 화를 내며 셋째 딸을 쫓아내는데, 그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때 마통이와의 만남은 예정된 것이다. 삼공본풀이에서는 정처없이 해매다가 마통이를 만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본토에서 전승되는 민담의 각편에 따라서는 부친이 직접 숲장자에게 ‘데리고 살라’고 주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밭다고, 저 큰 산 밑의 숲 검정장사에게 딸을 주었어.”
밭살머리시러서 앙겡두 안해 주구 막 저 숲장수눔 저어 산골이 가서는 골
라 가지구 여웠어.”
에이 마할년 같으니, 네 덕에 먹어? 너는 그러면 숲장사나 얻어준다.”
숲인지 뭔지 이 지지바(제집애)나 데리고 가시오.”
아! 저년 숲장사에게나 준다.”¹¹⁾

삼공본풀이에서 마통이는 부녀간의 갈등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통이가 쫓겨나서 거처할 곳이 없는 딸을 맞아들여 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딸이 아버지 덕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아버지는 딸의 말대로 ‘내 복에 산다’고 하면 ‘나가서 살아봐라’고 하며 부녀 관계를 단절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양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통이를 만나게 된다. 마통이와 혼인하게 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은 사라진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딸을 좇아냄으로써 아버지는 자신이 권위를 찾고, 딸은 자신의 복에 의해 잘 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때 만나게 되는 마통이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에서 마통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딸이 주장하는 <내 복>을 확인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 아버지로서는 부자가 아닌 가난뱅이에게 딸을 주어버림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고, 내 복에 산다라는 대답으로 인해 쫓겨나는 딸에게는 오히려 가난뱅이가 자신의 복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더욱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더불어 살 때는 부자로서 고귀한 신분인데 마통이의 아내가 되면서는 아주 천한 신분으로 전락한다. 아주 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이룩되면 이것이야말로 층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9, p.156.

8) 위의 책, 4-5, p.189.

9) 위의 책, 2-6, p.613.

10) 위의 책, 2-1, p.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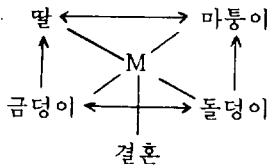
11) 위의 책, 1-9, p.206.

격적이다. 이러한 충격은 복 확인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와 같이 부녀 갈등의 요소는 발단부에서 충분히 문예적 흥미를 유발시켜 놓으며 진행되다가 고귀한 신분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전락시키면서 어떻게 '내 복'을 확인시킬 것인가 하는 문예적 흥미를 고조시키면서 전개부로 넘어가고 있다.

2) 전개부

전개부의 갈등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대립관계 : 딸과 마통이, 금과 돌

모순관계 : 딸과 돌, 마통이와 금

내포관계 : 딸과 금, 마통이와 돌

M : 중재자 혹은 의미 수렴자

쫓겨난 딸은 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려 한다. 그녀는 금이 귀중한 것임을 알고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반면에 마통이는 금덩이가 귀중한 것임을 모른다. 딸이 마통이와 결혼하고 남편에게 점심을 갖고 갔다가 금덩이를 발견하는데 이때 이 물건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다. 딸이 보기엔 금덩이인데 마통이가 보기엔 돌덩이에 불과하다.¹²⁾

죽은 마통이영 가고 보니, 큰 마통이 마 파난 딘 누릿누릿 혼 거 잇엄 「이거 무스건고」 췌여 보민 똥만 몰락몰락 췌여지고, 셋 마통이 마 파난 딘 「이거 무스건고」 허영 보민 주냉이, 베염 중심만 탕천 하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딘 차같이엔 좃어 데겨분 게 봉강 혹 쓸엄 보민 금덩이꼭 봉강보민 은 덩이꼭 둥글둥글 나아온다. 감은 암췌에 시껴 오니 물믄쉬 나와간다. 유기 전담 나와 간다. 가제 높은 와개집 풍경 돌고 와라치라 잘 살아 간다.¹³⁾
(방점 : 필자)

그래 인자 밥을 갖다 주고 떠억 와 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하는 말이 "내일은 총각님이 솥을 굽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들 만큼(모두) 싸 놓은 거 들

12)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에 의하면 삼공본풀이에서 마통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솥을 구워 팔아 살아가는 솥장이이며, 솥장이가 인식하는 돌은 이맛돌이 대부분이다.

13) 현용준(1980), 앞의 책, p.201.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울 그거 하나 썩 저 들이라.”카거든. 어 솟을 안 굽은 당장 굽어 죽는데 말이지, 그걸 저들이라 카이 가가 차거든, 저가 오라 카거든.’¹⁴⁾ (방점: 필자)

하나의 물건을 놓고 한사람은 금덩이요, 한사람은 돌덩이라는 인식은 물건의 가치 면에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이처럼 딸과 마통이(또는 솟장이)의 물건에 대한 인식은 대립 관계에 있다. 그리고 마 파는 터에 있는 물건이 귀중한 금임을 아는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돌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민담의 경우 아내가 귀중한 것이라며 ‘이 돌을 쪼다 팔자’는 제안은 지금까지 솟을 구우면서 돌덩이로 인식해 온 마통이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관계는 모순 관계이다. 이같이 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통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해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이들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다. 마통이는 아내의 제안이 탐탁치 않지만 ‘아내’이기에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든 가난뱅이가 되든 부부가 겪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누구 복에 사는가라는 물음에 아버지 덕이 아니라 내 복에 산다고 하여 굴복하지 않고 집을 나선 딸은 마통이를 만나 새출발을 한다. 신분 역시 고귀한 신분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금덩이가 발견되었다. 한 사람은 금덩이라고 하고 한사람은 돌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설화 전승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민담의 경우 딸은 솟굽는 터의 돌(이맛돌)을 빼내어 팔자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금덩이가 아니고 단순한 돌덩이일 경우 솟장이 부부는 굽어 죽게 된다. 그래서 솟장이 남편은 굽어 죽게 되는데도 ‘갖고 가 팔자’는 아내의 제안에 기가 차는 것이다. 아내의 말대로 그 물건이 금덩이이면 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솟장이 말대로 그것이 돌덩이라면 그들은 굽어 죽게 되는 점에서 복을 확인하기 위한 흥미는 고조되어 절정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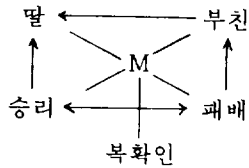
이것은 민담 뿐 아니라 삼공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통이의 일터에서 발견한 돌이 금덩이, 은덩이로 판명됨으로 말미암아 牛馬가 생기고, 鑿器田畝가 생긴다. 집도 瓦家로 짓고 風磬달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14) 앞의 책, 8-10, p. 391.

아내의 말대로 캐어다 판 돌덩이는 금덩이로 판명된다. 이것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도 이룩할 수 있고 <내 복에 산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개부의 <금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는 화소는 삼공본풀이를 회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3) 결말부

결말부의 갈등구조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대립관계 : 딸과 부친, 승리와 패배
 모순관계 : 딸과 패배, 부친과 승리
 내포관계 : 딸과 승리, 부친과 패배
 M : 중재자 혹은 의미 수렴자

딸은 마통이와 결혼하여 금을 발견함으로써 부자가 된다. 부친은 딸이 집을 나가자 집안이 몰락하여 가난해진다. 딸은 거지 잔치를 열어 부친과 상봉한다. 이러한 상황은 서두에서 부친이 누구 복에 사느냐는 물음에 내 복에 산다고 한 대답이 들어맞았음을 보여준다. 과연 딸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복대로 잘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쫓아냈는데 딸은 자신의 복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딸이 쫓겨난 장면을 보면 본풀이든 민담이든 부친과 딸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불효막심흔 예주식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어멍 눈에 굴리나고 아방눈에 시찌 나 입단 입성 거더설러 감은 암쇄에
 시꺼 놓고 먹을 군량 시꺼 놓고 나고 간다.
 「어머님아 잘 살암십서. 아바님아 잘 살암십서.」¹⁵⁾

“술인지 뭔지 이 지지바(계집애)나 데리고 가시요.” 이래니, 화가 나서 그래니까 이 술장사가 들어보니 나같은 거지한테 데려가라 하니 말도 안된다는 듯이 하다 지나 갈려고 하는데 셋째 딸이 비단 옷을 싹 새로 해 입고 갈아입고는 도장(곡간)에 들어가더니, “내 복 내가 가지고 가지.” 하면서 쌀을 서되 서흙을 퍼 가지고 술장사를 따라가더래.¹⁶⁾

15) 현용준(1980), 앞의 책, p. 195.

16) 앞의 책, 2-1, p. 309.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부친과 딸은 서로의 승리를 다짐하며 패배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딸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쫓아낸 부친은 거지가 되었으므로 딸은 승리하고 부친은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딸의 승리와 부친의 패배는 대립 관계이다. 또한 딸은 발단부에서부터 자신의 복에 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부친에게 확인시킨다. 반면에 아버지는 딸의 주장대로 자신의 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덕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관계는 전개부에서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됨으로써 상황은 역전되어 딸은 승리하고 부친은 패배한다. 따라서 이들 관계는 내포 관계에 있다. 딸이 패배하고 부친이 승리하는 일은 이 설화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곧 모순 관계이다. 이와 같은 딸과 부친의 대립 관계는 복을 확인함으로써 해소된다. 거지 잔치를 열어 부친을 만났을 때 개안함으로써 복을 확인하고, 거지 옷을 새옷으로 갈아 입음으로써 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발단부에서는 부친이 권위를 내세워 딸을 내쫓음으로써 부친의 승리와 딸의 패배의 상황이 결말부에 와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딸의 승리와 부친의 패배로 결말짓고 있다. 그러나 이 패배는 내 복에 산다라는 주장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다시 말하면 부친과 딸의 대립 갈등에서 쫓겨난 딸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복 있는 딸을 쫓아낸 아버지는 몰락하여 거지가 되는데 이렇게 결말지움은 도덕율에 어긋난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승리와 패배라는 것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승자들은 자식이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자 부친을 만나게 하고 딸의 주장대로 <내 복>의 승리를 확인시켜 '인간은 제 복만큼 산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놓으면서 동시에 부친에 대해 효도를 했다는 행복담으로 이끌어 양자의 대립을 화해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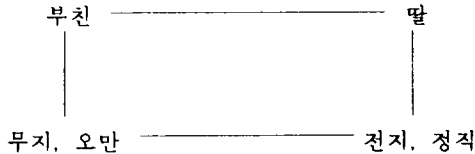
3. 인물의 성격

앞절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삼공본풀이는 발단, 전개, 결말로 나누어지며 각 부문은 2항 대립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대립을 주도하는 인물의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1) 부친과 딸의 갈등에서

삼공본풀이에서 거지 부부는 셋째 딸을 낳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부유하게 된다. 이것은 셋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 났으며 거지 집안이 셋째 딸에 의해 부자가 된 것으로 부친의 덕이 아닌 셋째 딸의 복이다. 그러나 부친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덕으로 잘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딸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려고 문답을 한다. 여기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무지와 그의 오만스러움이 드러난다. 아버지는 집안의 행, 불행은 자기의 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물이다.

누구 복에 사는 가라는 물음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부모님 덕에 산다고 하나 셋째 딸은 부모님의 덕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복 때문에 산다고 바른 말을 한다. 이에 대한 확인은 결말부에 가서 금덩이를 발견함으로써 인정된다. 또 자신을 내쫓는 부친이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민간설화에서는 거지 잔치까지 열기도 한다. 이럼으로써 딸은 전지적이고, 정직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발단부에서 부친의 무지와 오만스러움은 딸의 전지적이고 정직한 성격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두 인물의 대립적인 성격을 구조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갈등은 즉시 해결되지 않고 딸을 쫓아냄으로써 전지적이며 정직한 딸이 무지하고 오만스런 아버지에 의해 곤경에 빠진다. 바로 이것이 발단에서 제기된 문학적 흥미요소다.

2) 마통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에서

부친에게서 쫓겨난 딸은 마통이를 만나 부부가 되고 마통이의 일터에서 금덩이를 발견한다. 아내는 남편이 돌덩이라고 하는 것(민담에서는 솥굽는 터의 이맛돌)이 귀중한 금덩이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돌을 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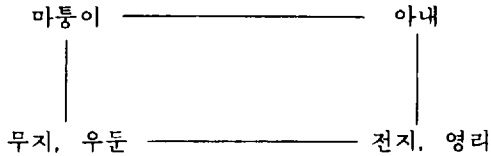
오게 하는 것이다.¹⁷⁾

색시 눈에 이래 본께로 술이망 댘는 것도 금독키고(금으로 된 돌) 시야 났는 것도 독키라. 금이라 전부. “당신 여 솟 꺾지 마고 저 독클 가주 가자.” “저 독클 뭐할라 가주 가나?” “아니 암마뚜(아무말도) 말고 가주 가자고.” 두 디이 다 가주 왔거든. 맹 금덩거리라 그기. 그래 갖다 놓고, “솟 꺾지 마고 한 날 장애 저 이거 가주 가서 지 값 둘라 카이소.”¹⁸⁾

물건을 파는데 값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재 값>을 달라 하니 부르는 게 값이다. 이처럼 아내는 전지적이고 영리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반면에 마통이는 아내가 귀중한 것이라는 금덩이를 돌덩이로 인식하는 무지하고 우둔한 인물이다. 민담에서는 아내가 귀중한 물건이니까 캐어다 팔자고 하자 그 이맛돌을 캐어가면 솟을 못 구워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물의 우둔함은 주변국가의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아내가 솟장에게 銀子를 주어 물건을 사오도록 하였는데 도중에 개에게 쫓기자 은자를 던져버리고, 일본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小判을 주고 쌀을 사오도록 했는데 가는 도중에 새를 잡으려고 금덩이를 던져버린다.¹⁹⁾ 결국 꼭 같은 가난한 인물이며 신분적으로 천민이며 무지, 우둔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가난하고, 비천하며 무지, 우둔의 표상인 남편과 전지적이며 영리한 여자와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긴장을 조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외형상 돌덩이인 것이 아내의 말대로 금덩이로 판명되면서 갑자기 신분상승을 일으키고 여성의 우월성이 드러나면서 전개부의 문학적 흥미가 고조된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본풀이에서는 금을 팔아오도록 하는 장면이 없이 바로 부자가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현용준(1980), 앞의 책, p.195.

18) 앞의 책, 7-16,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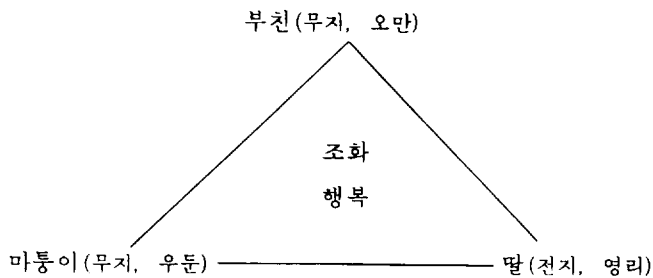
19) 줄고,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참조.

3) 결말부에서

발단부에서 아버지는 딸의 내복에 산다는 대답을 수용할 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다. 더욱이 아버지의 덕 때문에 잘 산다고 한 두 딸들은 포용하고 셋째 딸에게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네 복대로 살아 보라'고 하여 딸을 쫓아내는 오만함이 드러난다.

전개부에서 마통이는 가장이면서 소극적이고 금덩이를 돌덩이로 인식하고 있는 무지한 인물이며 그걸 깨우쳐 주고 이끄는 아내의 행동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우둔함을 보인다. 반면에 딸로서든 아내로서든 셋째 딸은 전지적이며 정직하고 영리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어 '내 복에 산다'라는 주장을 부친에게 입증시킴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지하고 오만한 부친은 복이 있는 셋째 딸이 집을 나가자 그 날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여 거지가 된다. 여기서 저기 돌아다니던 중 거지 잔치에 참석하여 자신이 쫓아낸 딸을 만난다. 여기서 딸은 자신을 쫓아낸 부친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전승 의식

위의 구조 분석에 따른 의미 추출과 인물의 성격 및 사건의 갈등 해결에서 보아 이 설화의 전승의식은 자명해진다. 구조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집안의 빈부, 흥망, 행, 불행은 여자가 타고난 복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과 여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행복의 개념

누구 복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내 복에 산다고 하는 「복」을 향유층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민간설화 향유층들의 복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1. 종을 부리게 된다. (셋째 딸과 숫쟁이, 대제 8-14, p.357)
2. 논사고 밭사고 집사고 아들 딸 놓고 잘 살더라(숫굽는 총각 부자되기, 대제 8-14, p.303)
3. 말리(말들이) 쌀로 서말을 메기 났을게 얼마나 부잡니까?(복많은 여자, 대제 8-10, p.388)
4. 기와집도 사고 논도 사고(재복으로 산다고 한 셋째 딸, 대제 7-10, p.617)
5. 금수저, 금밥그릇, 금식기로 먹다(자기 복으로 산다, 대제 5-6, p.219)
6. 아들 딸 7남매 낳고 잘 살더라(내 복으로 먹고 산다, 대제 4-6, p.532)
7. 대궐같은 집 지어 삶(내 복으로 먹고 산다, 대제 4-6, p.134)
8. 그 다음날부터 고래등 같은 집을 몇 채 짓고 호의 호식하는데(숫장수 이야기, 대제 2-1, p.309)
9. 큰 부자가 되구 아들 딸을 잘 낳구 살다(막내딸과 숫장이 총각, 대제 1-4, p.416)
10. 고래당겅은 기와집을 짓고 삶(누구 덕에 사나, 대제 1-4, p.851)

위에 나타난 예들로 보아 향유층들이 생각하는 복은 큰 집을 짓고 밭을 많이 갖고 종을 부리면서 아들 딸 많이 거느리고 부자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여자는 타고 날 때부터 복이 있었는데 그녀를 쫓아낸 부친은 복을 쫓아 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는 복이 있을 때는 부자로 살지만 복이 없을 때는 가난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쫓겨난 셋째 딸이 만나는 마통이도 가난뱅이인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여자를 만남으로써 부자가 된다. 가난뱅이 남편이 복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는 흰죽을 끓여 먹는다²⁰⁾ 가난한 생활이었는데 복이 있는 아내를 얻고 난 후는 쌀밥을 먹는다. 마통이

20) 앞의 책, 8-14, p.357.

들의 가난한 생활은 쌀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쫓겨난 딸이 쌀밥을 하여 내놓았을 때 마통이들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밥을 거려 상 출여 아전 할망 하르방신디 들어가니 「하르방 데에도 아니 먹어난 거여.」 허멍 아니 먹으니, 큰 마통이안티 들러가니, 「조상 데에도 아니 먹어난 거. 이런 버랭이밥 아니 머키여.」²¹⁾

이러한 그들의 삶에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이다. 실제로 전승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을 과 먹었다」라는 사실도 가난뱅이를 마통이로 명명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토 민담에서 숫장이라는 가난뱅이도 궁극적인 행복은 밭을 많이 갖고 농사를 많이 지어 사는 것이 부자라는 관념이다.

2) 복과 여성

복이 있다라는 것은 부자로 산다라는 관념과 동일시되는 점을 앞에서 살폈다. 그러면 어찌서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나타날까.

삼공본풀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²²⁾는 중국에서는 故事로, 한국에서는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炭燒長者 昔話로 전승되고 있는데 모두가 여성이 복을 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일본의 경우는 시집 못 간 딸이다. 이 딸이 태어나면서 가난하던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논, 밭을 사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셋째 딸의 복 때문이라는 단정은 없다. 그러나 셋째 딸이 축출되면서 그녀의 복 때문이었음이 판명된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게 되기 때문이다.²³⁾ 민간설화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숫장사에게 이 딸애를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하니 딸이 비단 옷을 새로 해 갈아입고는 곡간에 들어가서 “내 복을 내가 가지고 가지” 하면서 쌀을 서되 서흙을 퍼 가지고 숫장사를 따라가 복쌀 덕분에 금을 발견

21) 현용준(1980), 앞의 책, p. 200.

22) 필자는 이를 「내 복에 산다」系 說話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참고, 앞의 논문 참조.

23) 赤松智城·秋葉隆의 삼공본풀이에 의하면 부친이 딸을 내쫓자 딸이 오방신장을 불러들여 일시에 집을 망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²⁴⁾ 어느 것이나 딸이 집안에 있을 때는 그 복으로 부유해지다가 그가 집을 떠나자 가난해지는 것으로 되어 집안에서의 복의 유무는 딸에게 달려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쫓겨난 딸은 마통이(숫장이)와 부부가 된다. '내 복은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하여 퍼 온 쌀을 한 움큼으로 밥을 하니 한 가마 밥이 된다. 왜냐 하면 복 있는 여자가 갖고 오는 쌀은 복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은 점심을 갖고 남편이 숫굽는 터에 갔다가 이맛돌이 금덩이임을 안다. 가문장아가 마통이의 마구덩이에서 버려진 돌덩이들이 금임을 발견한다. 마통이는 돌덩이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귀중한 금덩이인 것을 몰랐다. 이러한 사실들은 복이 있는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관념은 복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 풍요의 원리라는 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

3) 복이 미치는 범위

삼공본풀이에서 보이는 가족 형태를 보면 핵가족이다. 부모와 자식인 세 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친의 비위를 거스른 딸은 부친의 엄명에 의해 쫓겨난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딸의 복으로 집안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가족 범위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친에게 쫓겨난 딸은 마통이와 만나 결혼한다. 쫓겨난 딸이 산속으로 들어가 마통이를 만나 적극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는데 민담에서는 부친이 직접 가난뱅이인 숫장이를 만나 그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시집을 못 간 딸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 가난뱅이인 숫장이가 그녀의 남편임을 알려주고 몸소 그를 찾아가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찾아가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남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며느리는 시집 집안 소속임을 드러내며 출가 외인이라는 의식의 표출이다. 결혼 전에는 친정에 복이 미쳐 부유하게 되나 시집간 후는 시집에 복이 미쳐 시집이 부유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복있는 여인이 결혼을 전후하여 어느 친족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복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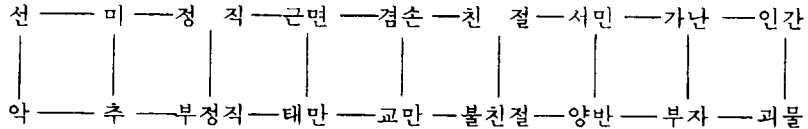
24) 앞의 책, 2-1, p.310.

결국 집안의 가난과 부자는 여자의 복 여하에 따른 것이라는 의식이 담겨진 것이다.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집안의 성쇠가 좌우된다는 의식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인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니고 태어난 복덩이 그 자체이며, 복있는 며느리의 덕으로 빈·부의 문제는 富로 결말지워진다는 것과 부녀간의 윤리적 문제를 효로 결말짓는 점은 바로 이 설화가 갖는 중요한 전승 요소이다.

이 설화가 이러한 의식을 표출하려는 의도는 다른 설화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담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면 한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계모담의 계모와 의붓자식, 형제담의 악한 형과 선한 아우와 같이 두 인물의 대립, 갈등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이 설화는 아버지, 딸, 남편을 등장시킴으로써 부녀간의 윤리적 문제, 부부간의 집안의 빈부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설화이다.

민담에서 등장 인물 사이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두 원리의 대립 갈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설화가 갖는 갈등은 善惡 두 원리의 유형적 인물의 일반적 갈등이 아니라, 무지·오만 대 전지·정직, 우둔 대 영리 등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의 갈등이라는 점이 다르다. 갈등의 해결도 일반적 민담은 善의 원리가 惡의 원리에 몰려 곤경에 빠졌다가 초자연적 존재의 원조 또는 주인공의 지혜와 용기로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로 결말지우는데, 이 설화는 악의 원리에 의한 난관 봉착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존재의 원조나 지혜, 용기에 의한 승리도 아니다.

이러한 이 설화의 특성은 설화가 말하려는 주제인 여자의 복, 바로 운명에 있다.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삼공본풀이는 전상신(前生神)의 내력담이었다. 전상(前生)은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으로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²⁵⁾ 것으로 나쁜 전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달리 집안에 복을 불러들여 천하거부로 만들어주는 좋은 전상도 있다.²⁶⁾ 이렇게 볼 때 운명은 현세에서 행해지는 좋고 나쁜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현세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고난 복 곧 운명이 선천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운명이란 미리 정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설화가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초자연적 존재의 靈力은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작용하고 태어난 후의 생활에 노출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 靈力이 삼공본풀이에서 여성을 통해 나타난 운명이다.

운명은 초자연적인 것이요, 형이상학적인 것이며 철학적인 것이다. 초자연적, 철학적인 문제는 단지 민담의 오락성을 주는 것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설성, 신화성을 띤다. 따라서 이것을 특수한 인간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하면 전설이 되고, 초자연적 존재의 설명으로 기울어지면 신화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삼공본풀이는 본래부터 신화·전설·민담으로 이야기될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맺 음 말

삼공본풀이는 의례이면서 설화이다. 전승자들이 설화를 즐긴다는 점은 그들의 문화와 배치되지 않고 문학 의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장구한 세월을 두고 전승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전승자들이 설화를 전승하는 이유를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삼공본풀이는 발단부에서 부친의 딸의 福의 유무에 대한 욕구가 대립됨으로 말미암아 축출되고 전개부에서는 이의 해결을 모색한다. 그러나 능력의 유무에 따라 부부 갈등이 과생된다. 이의 해결은 <금 발견>을 통하여 해소되며 결말부에서 이러한 사실은 주인공인 딸의 福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은 재복만큼 산다>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 놓으면서 동시에 부친에 대해 효도를

25) 현용준(1980), 앞의 책, p.63.

26) 앞의 책, p.377.

함으로써 양자의 대립을 화해시키고 있다.

2. 福 확인문답을 통해 부친은 무지하고 오만스러움이 드러난다. 이에 비해 딸은 전지적이며 영리한 인물이다. 무지하고 우둔한 가난뱅이 마통이와 결혼하여 금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복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결말부에서 자신을 축출한 부친을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이 설화의 전승 집단은 빈부·홍망·행·불행은 여자의 타고난 복에 달려 있다고 본다. 福으로 나타나는 행복한 삶이란 큰 집을 짓고 밭을 많이 갖고 종을 부리면서 아들 딸 많이 거느리고 부자로 사는 것이다. 여성의 복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한 후에는 시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행·불행은 모두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운명관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신화를 문학 작품이라 보아 행해진 결과다. 그러나 신화와 의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례행위가 신앙민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신화와 의 관계는 어떤가라는 문제를 병행해서 살펴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